



국제회계기준원, IFRS 9 적용 유예 허용

최원 선임연구원

요약

■ 국제회계기준원(IASB)은 지난 3월 IFRS 9 적용과 관련한 공개초안 내용을 재차 논의함. 주요 내용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보험회사에게 한시적으로 IFRS 9 적용을 유예하고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당기손익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(자본항목)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임. 따라서 IFRS 4 2단계와 IFRS 9의 시행 일정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, 여전히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제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- 국제회계기준원(IASB)은 2016년 3월 회의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IFRS 9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함.
 - 보험계약 관련 활동이 지배적²⁾ 업무인 보험회사의 경우 IFRS 9 적용을 2020년 말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.
 - 또한, 보험계약 관련 금융자산의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당기손익 가운데 일부를 기타포괄손익(자본항목)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됨.
- 보험업권이 주목해야 하는 IFRS 9의 핵심적인 변화는 금융자산 분류체계 변화와 이에 따른 가치측정 및 인식방법의 변경임.
 - 현재 회계기준은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, 매도가능금융자산, 만기보유금융자산,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음.
 - 현행 회계기준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화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당기손익으로, 대부분의 매도가능금융자산³⁾은 기타포괄손익으로,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상각후원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.

1) IASB Meeting(2016, 3), *Applying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with IFRS 4 Insurance Contracts*, <http://www.ifrs.org/>.

2) 이는 IFRS 4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인한 부채 규모가 해당 회사의 총부채 규모에서 차지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할 예정임.

3) 일부 매도가능 지분상품의 경우 취득원가로 인식함.

- 그러나 IFRS 9에서는 금융자산을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.
 - 또한,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다시 공정가치 변화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음.
- 그동안 보험업권은 IFRS 9과 IFRS 4 2단계 시행 일정⁴⁾의 차이로 인해 회계상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해 왔음.⁵⁾
 - IFRS 4 2단계 시행 전까지는 보험부채의 원가평가가 가능하므로 이에 준하는 자산과 부채 대응이 이루어질 것임.
 - 그러나 예정대로 2018년부터 IFRS 9이 적용되고 금융자산 분류체계와 가치측정 및 인식방법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경되면, 일시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.
- 아울러, 보험업권은 IFRS 9 시행으로 금융자산 분류체계가 변경되고 보험회사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에 따라 회계정보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려하였음.
 -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매도가능 지분상품의 경우 매각 시 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⁶⁾하나, IFRS 9에서는 지분상품 매각 시 손익을 이익잉여금(자본항목)으로 바로 인식해야 함.
 - 현재는 매도가능 채무상품의 손상발생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⁷⁾만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반면, IFRS 9에서는 공정가치 변화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신용 위험 변동에 따른 기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.
 - 이는 현행 발생손실모델(incurred loss model) 개념이 IFRS 9에서는 금융자산의 손실 가능성을 추정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기대손실모델(expected loss model) 개념으로 개편되기 때문임.
- 이번 결정은 2016년 하반기 최종 수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나, 여전히 IFRS 9과 IFRS 4 2단계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.
 -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한국회계기준원(KAI)은 IFRS 4 2단계와 IFRS 9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 마련 노력과 더불어 국제회계기준원(IASB) 논의 내용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음. [kiri](#)

4) 국제회계기준원(IASB)은 2020년 IFRS 4 2단계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.

5) 보험업권에서 제시한 우려 사항은 Ernst&Young(2016, 3)과 한국회계기준원(2016, 1, 25) 자료 등을 참조함.

6)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손익 중 문단번호 55(2)를 참조함.

7)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중 문단번호 67을 참조함.